

내장초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SDSB) 분석 보고서 II

- 2017~2018 결산 및 2019 본예산을 중심으로 -



내장초등학교 행정실

차 례

I. 배경	1
II. 목적	2
III. 기능	2
IV. 분석 도구	2
V. 분석 결과	2
1. 결산총괄	2
가. 개요	3
나. 시사점	4
2. 정책사업별	5
가. 개요	6
나. 시사점	6
3. 기본 인프라	7
가. 개요	7
나. 시사점	8
4. 이월금 현황	8
가. 개요	8
나. 시사점	9
VI. 총평 및 대책	10
1. 총평	10
2. 대책	11
가. 추경예산 편성	11
나. 발전기금 활용	11
다. 유-초간 협조체제 강화	12

내장초 지속가능발전학교재정(SDSB) 분석 보고서Ⅱ

내장초등학교
행정실

I. 배경

본교는 2018.3.22. 학교회계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학교재정(SDSB¹⁾) 모형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바 있다²⁾. 국가 교육 정책의 변화, 2015개정교육과정 시행, 전라북도교육청 시책,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폭염·미세먼지·석면·라돈 등 나빠진 교육환경 대처 등 학교를 유지·경영하기 위한 학교재정의 당면 현안이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본교는 2009년부터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학교로 변모하여 지난 10년 동안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큰 꿈을 키우는 창의적인 내장교육』 슬로건 아래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공교육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도전, 실험을 펼쳤으며 인구절벽 상황으로 치닫는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학교 스스로 극복하는 방안을 매우 성공적으로 찾아 왔다.

다만, 교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우리 삶과 더불어 일상화되고 매우ダイ내믹해지고 있다. 그러한 속성에 가장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학교재정이다. 예를 들어 본교는 2018년 9월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시책에 따라 용역근로자 4명(돌봄2, 청소원2)을 직고용으로 전환했으며 전라북도교육청과 이들 직종관련 노조의 단체협약에 의한 처우개선 이행을 위해 적지않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냉난방기 가동, 강당활용 활성화, 돌봄교실·급식실 등 전기수요의 급증 및 수도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에너지비용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학교수준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교재정 분석 모형(시즌Ⅱ)을 적용해 봄으로써 가깝게는 2019학년도 제1회 본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참고하도록 하며, 길게는 향후 학교재정운용의 방향타 역할에 기여하고자 한다.

1) SDSB(Sustainable Development School Budget): 지속가능발전학교재정

2) 내장초-1926(2018.3.20.)

II. 목적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 분석 결과를 통해 2회계연도(2017·2018) 결산 추세를 확인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년도 지속가능발전예산을 도출하여 현 실제 예산(2019 본예산)과 대조함으로써 본교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2020학년도 이후 내장초등학교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목표 및 실천전략 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III. 기능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 분석은 본교의 기본운영 인프라의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규모를 추정하고, 교육 과정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중장기적인 학교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IV. 분석 도구

- 결산액: 회계연도 종료된 후 세출결산액 (2 회계연도: 2017, 2018)
- 추세율: 2 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의 증감률 $\{(\text{전년도}-\text{전전년도}) \div \text{전전년도} \times 100 \div \text{대상연도수}(2)\}$
-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발표 당해연도 평균물가상승률(2018년도: 1.50%)
- 지속가능발전율: 추세율 + 물가상승률
- 지속가능발전예산: 전년도 결산액에 지속가능발전율을 곱한 증감분을 합산한 예산

V. 분석 결과

1. 결산 총괄

(단위: 원, %)

구분	2017 결산액	2018 결산액	추세율	물가 상승률	지속가능 발전율	2019 SDSB	2019 실예산	과부족	비고
내역	574,927,500	663,912,780	7.74	1.50	9.24 (≒9.0)	723,664,000	603,322,000	-120,342,000	

가. 개요

2018년 결산액 663,912,780원은 2017년 574,927,500원보다 15.48% 증가한 수치다. 이 수치는 2017에서 2018로의 일방적인 증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재정 상황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자 분석 연도수(2)만큼으로 나눈 값, 즉 단순증가율의 1/2(50%)을 추세율로 본다. 그 결과 추세율은 7.74%가 되고 여기에 2019년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도 평균물가상승률 1.50%를 합하면 9.24%(≒ 9%)의 지속가능발전율(9%)이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연도(2019)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SDSB)은 전년도(2018) 결산액(663,912,780원)에 지속가능발전율(9%)을 곱하여 나온 체증분(59,752,000원)을 더한 예산액(723,664,000원)이 되는 것이다. 본교 2019년 실제 예산은 분석일 기준 603,322,000원으로, SDSB(723,664,000원)에 비해 120,342,000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산총괄은 학교재정의 거시적 지표라는 상징적 의미는 큰 대신에 재정운영 상태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다 실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거품성격을 제거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 낼 필요가 있다.

우선 세입(전입금) 중 학교기본운영비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구분	2017 결산액	2018 결산액	추세율	물가 상승률	지속가능 발전율	2019 SDSB	2019 실예산	과부족	비고
내역	205,008,000	211,574,000	1.60	1.50	3.10 (≒3.1)	218,132,000	213,778,000	-4,354,000	
총액 비율	590,813,000 (35%)	672,250,000 (31%)					602,651,000 (35%)		

세입결산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세입총액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35%에서 2018년 31%로 4%p 줄었다. 반면 목적사업비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구분	2017 결산액	2018 결산액	추세율	물가 상승률	지속가능 발전율	2019 SDSB	2019 실예산	과부족	비고
내역	236,878,000	294,430,000	12.15	1.50	13.65 (≒13.7)		244,604,000		
총액 비율	590,813,000 (40%)	672,250,000 (44%)					602,651,000 (41%)		

목적사업비는 2017년 40%에서 2018년 44%로 4%p 늘었다. 결국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목적과 용도를 지정받는 목적사업비는 늘어난(12.15%) 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본운영비는 $\frac{1}{12}$ (1.6%)증가에 그쳐 그만큼 학교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2019학년도는 채 1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분석일 기준으로 목적사업비 비중이 41%를 기록하고 있다.

나. 시사점

2019년 실예산이 SDSB보다 크면 학교의 재정 여건이 매우 좋은 상태를 의미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주요 교육사업의 외주화(아웃소싱) 용이,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개선 투자 확대, 학부모(수익자)부담의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2019년 실예산이 SDSB보다 작으면 그만큼 학교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때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외부 용역(아웃소싱)을 축소하고, 교육 환경이나 시설 투자 계획을 당분간 미루거나 외부 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기존의 무상지원 사업 중 일부를 학부모(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본교 재정건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대 요인은 I.세입재원의 부족과 II. 인건비의 급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입재원 부족은 교육청전입금에 거의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요인인 반면, 인건비 급증은 최근 재정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분	2018	2019	증감
현원	6	11	5
직종	교무실무사,특수지도사,영양사,조리원2,안전지도사	교무실무사,특수지도사,영양사,조리원2,안전지도사,시설관리원,청소원2,돌봄전담2	

위 자료는 분석일 기준 2018~2019년 교직원(무기계약직) 현원 변동을 보여준다. 5명이 공무원(무기 또는 촉탁직)의 신분으로 전환된 셈이며, 실질적인 교직원의 범주에 포함했었던 시설관리원을 제외한 4명분의 인력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재정은 당분간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019년 본교 인건비 소요 현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정기급여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교통보조비	사회보험	퇴직금	합 계	비 고
시설관리원	16,000	1,560	1,000	400	720	920	1,400	22,000	
안전지도사	13,600		1,000	400				15,000	
돌봄전담	19,900	2,860	2,000	800	1,440	3,000	2,000	32,000	
청소원	15,800	3,000	2,000	800		1,000	1,400	24,000	
유치원기간제	30,600		1,000	400				32,000	
합 계	95,900	7,420	7,000	2,800	2,160	4,920	4,800	125,000	

특정교육사업비와 마찬가지로 학교관리 공무원 인건비 역시 교육청에 재원을 의존하는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본교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지원을 요구하기도 곤란하거나 노동관계 법령이나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의해 도중에 늘어나는 처우 개선급은 기본운영비로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본교는 급식실 배식인력 필요에 의해 급식도우미를 유료로 운영중이며 운전원, 조리원, 안전지도사, 청소원, 돌봄전담사 업무공백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대체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행하는 필수사업임에도 세입재원의 고질적인 부족때문에 학교재정 건전화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2. 정책사업별

(단위: 원, %)

정책사업	2017 결산액	2018 결산액	추세율	물가 상승률	지속가능 발전율	2019 SDSB	2019 실예산	과부족	비고
기본적 교육활동	128,717,760	97,559,920	-12.10				65,137,000		
선택적 교육활동	70,862,220	133,929,110	44.50				159,796,000		
교육활동 지원	27,777,130	33,633,080	10.54				21,266,000		
소계(교육)	227,357,110	265,122,110	8.31	1.50	9.81 (≒9.8)	291,104,000	246,199,000	-44,905,000	
인적자원운영	3,835,620	8,056,090	55.02				12,724,000		
교육격차해소	226,839,210	262,580,970	7.88				231,273,000		
학교일반운영	116,895,560	128,153,610	4.82				113,126,000		
소계(행정)	347,570,390	398,790,670	7.37	1.50	8.87 (≒8.8)	433,884,000	357,123,000	-76,761,000	

가. 개요

정책사업별 SDSB 자료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카테고리상 교육부문과 행정부문의 과부족 차이다. 지속가능발전율이 교육카테고리는 9.8 행정카테고리는 8.8로 1%p 차이에 불과하지만 SDSB를 적용한 2019 실제 예산은 분석일 기준으로 교육은 -44,905,000원인데 비해 행정은 -76,761,000원으로 1.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조직의 특성상 교육은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고, 행정은 거의 대부분 기본운영비로 충당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일반운영을 포함한 행정카테고리의 재정압박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크게 학교시설장비유지 및 부서기본운영으로 구성된 학교일반운영(행정) 사업은 시설관리원 및 청소원 인건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교직원 여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자료 2017·2018년의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의 결산액상 증감사유는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인건비 약 30,000,000원이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이동한 것과 인건비 증가분, 돌봄교실 운영비가 일부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나. 시사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은 본교 단일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 비중도 가장 큰 사업이다. 2015년까지 직영으로 해 오다 2016년부터 위탁 전환하였으며 직영과 위탁의 재정 투자를 단순 비교해 보면 2015~2018년 사업비 결산 결과가 각각 다음과 같았다.

(단위: 원)

연도별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운영 방식	프로그램수	예산액	결산액	비고
2015	직영		58,542,000	58,241,440	
2016	위탁(전주대)	6	65,316,000	59,524,520	
2017	위탁(우석대)	7	64,500,000	62,872,790	
2018	위탁(전주대)	7	64,620,000	64,620,000	
2019	직영	7	82,000,000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은 2016년 처음으로 용역위탁으로 전환하여 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한 바, 제안서 평가와 최저가격 낙찰제를 적용하여 2018년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하여 동일한 계약상대자와 계약조건은 거의 동일한 반면,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은 1,279천원 절감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직영 희망)와 2018년 9월 돌봄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화로 위탁운영의 명분이 약화되고, 학교 건축재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9학 년도는 다시 직영을 실시한다.

(단위: 천원)

연도	학운위심의	입찰공고	(유찰)재공고	제안서평가	개찰(낙찰)	계약체결	계약금액	업체
2018	2017.12.14.	12.27.	2018.1.24.			2.26.	50,441	두드림
2017	2017.2.8.	2.9.		2.21.	2.21.	2.24.	47,965	애니설리반
2016	2016.2.17.	2.5.	2.16.	2.26.	2.26.	2.29.	51,720	두드림

그러나 직영 전환에 따른 예산절약 효과를 직고용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압도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학교재정 건전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3. 기본 인프라

(단위: 원, %)

Infra.	2017 결산액	2018 결산액	추세율	물가 상승률	지속가능 발전율	2019 SDSB	2019 실예산	과부족	2016 결산액
전기	20,991,290	21,678,560	1.64	1.50	3.14	22,359,000	20,936,000	-1,423,000	20,124,950
수도	2,335,740	2,943,770	13.02	1.50	14.52	3,371,000	3,100,000	-271,000	1,937,690
계	23,327,030	24,622,330	2.78	1.50	4.28	25,676,000	24,036,000	-1,640,000	22,062,640

가. 개요

학교 인프라(Infrastructure) 중 전기와 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학교 일반운영비(128,153,610원)의 19.2%에 해당하는 24,622,330원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을 놓고 보면, 2017년 1,264,390원, 2018년 1,295,300원으로 나타나 해마다 평균 1,200,000원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전기요금도 2019 실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 확실시되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본교는 BTL특성상 천정매입형 냉난방기 가동과 강당설치 냉난방기에 의한 고정 지출 비용이 해마다 점증하는 한편, 새로운 전력 수요 요인이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어 향후로도 전기요금은 본교 재정 운용에 가장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 시사점

교육청에서도 동·하계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냉난방 예산을 우선 확보토록 지도하고 있는 바, 추경을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함과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전기 수요 요인을 합리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 변화 영향으로 가뭄, 폭염,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율이 높아져 잔디, 수목, 화초, 텃밭 관리를 위한 물대기, 영양제, 거름, 제초, 농기구, 유류, 일용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점증도 앞으로는 재정 압박에 한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요금 총액은 전기요금 총액의 $\frac{1}{10}$ 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전기요금보다 오히려 5배나 빠르다. 그 만큼 상수도 사용량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다. UN은 우리나라를 이미 물 부족 국가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기부문과 마찬가지로 추경을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교(the whole school)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이월금 현황

가. 개요

지속가능발전학교재정 모형을 검토함에 있어 본교 재정상황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는 이월금이다. 이월금은 결산과정에서 확정되고 당해연도 세입 재원을 구성한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이월금은 8,338천원이며 초등이 3,433천원 유치원은 4,90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월금 규모는 2019 본예산 편성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2019편성 이월금	2018결산 이월금	과부족	비고
초등	9,000,000	3,433,000	5,567,000	1회 추경에서 감액
유치원	3,000,000	4,905,000	-1,905,000	1회 추경에서 증액
계	12,000,000	8,338,000	3,662,000	1회 추경에서 감액

2018 세입결산액 672,250,940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월금) 8,338,160원은 1.24%p에 불과하여 객관적 수치상 집행잔액(불용액)을 최소화했고 그만큼 충실하고 건전하게 학교재정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³⁾. 다만 학교재정의 연속성 관점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현연도의 세입재원 일부분인 만큼 초등의 경우 결산결과 축소된 금액만큼 과잉편성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감액(5,567,000원)해야 하고 반대로 유치원은 증액(1,905,000원)해야 한다.

나. 시사점

이월제도가 재정운용 스킬의 일종인 것은 분명하나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서 보자면 일종의 예외 사항이다. 보통 이월금 규모가 큰 경우는 그만큼 당해연도의 사업비 집행이 저조했고 그 말은 해당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목적달성에 실패했을 확률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산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도록 짜여져야 하고 회계연도 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제로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2016~2018년 결산까지 발생한 이월금 현황이다.

(단위: 원)

구분	2016결산 이월금	2017결산 이월금	2018결산 이월금	2019결산 이월금	비고
초등	8,660,740	11,436,610	3,433,000	?	
유치원	6,703,320	4,448,890	4,905,000	?	
계	15,364,060	15,885,500	8,338,000	?	
증감분	521,440	-7,547,500	?		

3) 특별한 사유 없이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 당해 연도 세입결산액의 5%이상 발생한 학교는 2019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5% 초과분 감액 교부

주목할 점은 이전 두해에 비해 2018년에 이월금이 매우 큰 폭으로 줄었다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용역근로자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학교재정의 급작스런 변화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월금 고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재정고갈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SDSB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지속가능발전학교재정의 위기 시그널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VI. 총평 및 대책

1. 총평

이 보고서를 처음 기획한 2018년 3월(시즌 I) 당시 결론부에 “2016~2017 재정 추이를 감안할 때 본교는 2018회계연도 예산과 결산 모두 장부상 처음으로 6억을 돌파하여 **학교총예산 6억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교는 의무교육 정신에 입각하여 거의 100%에 달하는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축물로써 건물유지 분야는 민간 운영사와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협조하고 있다. 대략 총예산의 5분의 2는 학생 교육 활동에, 나머지 5분의 3은 학교 기본 운영에 투자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교육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본교 예산 형편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짚막한 총평을 단 바 있다.

그로부터 이제 만 1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학교재정(SDSB) 분석 보고서(시즌 II)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1. 2017~2018 학교재정 변화를 고려할 때 본교는 2019회계연도 예산과 결산 모두 장부상 최초로 7억을 돌파하여 **학교총예산 7억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 2018년 9월 기점으로 전환된 직고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후변화·미세먼지에 따른 에너지비용 부담이 학교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것이다.

3. 학교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SDSB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학적·분석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한 한편, 발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초등과 유치원 재정활동의 상호 보완적 협조체제 강화 등 학교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첫 문장은 전망, 둘째가 진단이라면, 세 번째는 대책인 셈인데,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고자 한다.

2. 대책

가. 추경예산 편성

2016~2018년 결산분석 결과와 SDSB보고서(시즌 I)를 종합하면 본교 재정구조는 재원 배분의 총량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한계의 문제이지, 예산 편성의 부실이나 운용의 취약성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다. 앞서 논의한 2016~2018년 3년의 집행잔액(이월금) 발생 현황, 수준, 객관적 배경 등이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정압박의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됨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학교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2019년 4월 초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경은 전년도 이월금, 금년도 목적사업비 교부금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입계획을 재설계 하는 등 지속가능발전학교재정(SDSB) 분석 보고서(시즌II) 결과를 참고하여 편성하고자 한다.

나. 발전기금 활용

본교의 발전기금은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 모금이나 조성의 형태보다는 소액의 장학금 지급을 위한 개인 기부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발전기금 결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수입	1,906,860	2,106,980	4,164,470	
지출	1,900,000	2,042,800	2,200,000	
이월	6,860	64,180	1,964,470	

대개 기부자는 소수 인사로 한정되어 연례적인 시기에 기부해 왔는데, 2018학년도 말은 원로동문 등 참여인사가 증가하여 수입금이 2배 늘고, 이월금도 다소 발생한 상황이다. 기부 인사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활동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도서구입, 수업용 교재·교구구입, 체험학습비 등 학생을 위한 직접 교육비에 지출할 수 있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발전기금 운용과 학교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일석이조 일거양득 효과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위: 원)

구분	학교회계추경내용	발전기금활용방안	비고
세입(이월금)	(초)5,567,000감액	1,964,000	
	(유)1,905,000증액		
세출	(도서)3,000,000감액	1,964,000	도서구입
	(체육대회)2,000,000감액		유치원 행사운영비 협조
	(학예회)567,000감액		"
	(유교과활동)1,905,000증액		행사운영비

다. 유-초간 협조체제 강화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재정을 운영하다보면 통상적으로 유치원 재정이 초등보다 다소 여유로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병설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재정규모야 당연히 초등에 비교가 되지 않지만 초등은 대단위 시설을 유지 운영해야하고 유급인력이 많은데다 사업담당자도 많고 회계직공무원이 소속된 조직이다보니 재정수요 확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반면 유치원은 초등의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재정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초등과 유치원간 재정불균형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유-초간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두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 편성 단계부터 유-초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 마스터플랜이 설계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번 추경을 통해 유-초 공동교육과정 사업의 예산 활용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 학교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단위: 원)

공동교육과정	구분	유	초	비고
(5.1.)체육대회	세입	(이월금)1,905,000증액	(이월금)5,567,000감액	
(10.17.)은혜의집공연	세출	(유교과활동)1,905,000증액	(도서구입)3,000,000감액	
(10.18.)학습발표회			(체육대회)2,000,000감액	
			(학예회)567,000감액	

둘째, 예산 집행 단계에서 유-초 사업담당자들은 행사의 기획, 준비, 실행의 각 단계마다 유사·중복된 내용이 없는지,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체크하고 상호 협조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학교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